

고유가극복은 에너지절약 동참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중동 국가들의 정세불안으로 지난 2월 하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더구나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도 국제원유가격이 11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자급률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공급 확보만큼 에너지절약이 중요하다.

지난 4월 초 정부에서는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만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 개최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들의 시행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 선발대회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한 1만 가구를 선발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절약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실천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절약은 국민 개개인의 행동으로 그 성과가 결정되므로 에너지 절약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습관이 학교와 직장으로 이어지고 전체 사회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한 녹색생활(Green Lifestyle)이야말로 가장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일련의 정책은 앞으로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긍정적으로 감수하고, 상승하는 에너지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과 녹색생활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다.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절약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 대기전력 차단, 에코드라이브,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등 일상생활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작게는 가정 경제를 돕고, 크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관심이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